

學校保健管理에 專念하는 K兄에게

裴 寅 喆

서울市教育委員會 體育課

K兄

山野의 풍요한 結實과 빛은 곱지만 봄·여름의 화려한 꿈을 불태우며 마지막 길을 가야하는 落葉들이 對照를 이루면서 가을도 깊어 어느듯 싸늘한 初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兄과 兄의 家庭에 平康과 發展이 함께 있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K兄

兄이 學校保健을 擔當한지도 어언 4年, 오늘 11月 1일이 4年前 初任發令을 받던 바로 그 날이군요. 어쩌면 오늘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어서 兄에게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 兄을 뵈었을 때 조용한 어느 대포 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던 일들이 문득 생각납니다.

半生을 지나쳐버린 兄과 저의 對話는 意慾喪失의 限界點을 넘나드는 위태로움이 있으면서도 지나온 過去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現實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希求가 곁들인 매우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記憶됩니다.

K兄

兄은 그 때 약간 취기가 올라 人生을 論하다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人間은 시지크처럼 無意味한 作業을 되풀이 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땀흘리는 努力은 곧 人

生의 보람인지도 모른다”

“保健奉仕者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人間과 人間社會에 寄與하는 밑거름과 같으며 빛나는 훈장을 指揮者에게 안겨주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어느 兵士와도 같다. 그래서 동작동 국군묘지의 무명용사묘에 가끔 들려 想念에 잠겨 보곤 한다.”

“人類는 오랜 歲月 동안 精神과 肉體의 健康을 위해 努力해 온 것은 事實이지만 現代가 文明의 發達과 物質의 풍요를 구가하는 한편 食糧의 危機니, 에너지危機니 하여 危機意識을 漸高시키고 있으며 특히 精神의인 退廢와 安逸 그리고 近視眼의인 生活風潮는 무엇보다도 現代가 人間世界의 終末을 向해 踰달음길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狀況이고 보면 우리는 健康한 肉體와 健全한 精神을 위하여 倍前의 努力을 함으로써 이러한 危機를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時代에 處해 있다고 보겠다. 그러니 保健奉仕者의 使命이 너무 莫重하고 至難한 것임을 痛感한다.”

어딘가 失意와 厭世의인 느낌을 주는 듯하면서도 現代를 예의 주시하고 生의 意味를 찾아 努力해 보겠다는 兄의 生에 대한 굳은 意志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日前에 Y대 K교수의 이야기를 양호교사들과 함께 들은 일이 있습니다. K교수는 學校保健을

위하여 自己의 生을 불태우고 있는 文字대로의 公衆保健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짧은 時間이었지만 意味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健康 概念의 變遷이라는 主題下에 “肉體의 健康만을 생각했던 原時的인 概念에서 始作되어 人間社會의 複雜化와 人間知性的의 發達로 健康에 미치는 要因들이 多樣化하고 人間の 참된 健康이 무엇인가 하는 點에 人間이 눈뜨기 始作함으로써 追求하는 人間の 健康概念은 肉體的, 精神的, 社會的 次元에다 道義的, 靈的, 知的 등등의 많은 側面의 健康을 생각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過去에는 單純한 疾病없는 人生에서 効率的이고 理想的이며 더 나아가 期待되는 最高의 健康(全人類의 健康)을 지닌 人生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짧게도 길게도 볼 수 없는 人生길에서 人間이 가장 바라는 것이 幸福이며, 幸福을 위해서는 健康이 絕對的인 要素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의 健康만으로는 참다운 健康을 가졌다 볼 수 없으며 그 家庭이, 그 社會와 그 國家가 더 나아가 人類全體가 健康한 精神의 健康이 保障되어야만 참다운 健康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人類的 理想인 幸福과 바로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주위의 諸般與件이 許諾되지 않고 貫徹시키겠다는 意志가 없으면 말하지 않음만 못하고 조그마한 자기의 功을 무슨 위대한 일이나 한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치고 보람있는 結實은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K兄

두서없는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現代人의 하나으로써 뭔가 생각은 하여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계속합니다.

人間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確固한 信念과 意志가 있어야겠고 奉仕하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만 일에 대한 滿足感도 얻게 되고 일의 成功度나 社會 寄與度도 높아지리라 생각합

니다. 나 하나 뿐이라는 생각,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無常한 人生을 생각하기 쉬운 人生길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새삼 느낍니다. 人間이 삶을 肯定한다면 이 肯定은 곧 能動的인 삶을 追求해야 한다는 말이 되며 現實에서 타성에 젖은 思考方式을 拂拭하고 活氣있고 힘에 넘치는 前進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남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또 훈장을 받거나 표창장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기쁨과 남을 위해 봉사하는 幸福感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姿勢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K兄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兄이지만 兄을 現解하고 따르는 이 동생이 있고, 이 세상 의 어느 모퉁이에서는 兄과 같이 努力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確信을 가지고 보람있는 兄의 일 에 전념해 주시기를 빕니다.

창의와 근면은 結實을 보게될 것이며 한 줌의 기쁨진 혹은 人間을 生存케 하고 生活하게 하는 根源이겠기에 거기에 生의 보람과 뜻이 있는 것 임을 다시 한 번 느끼시고 용기와 信念을 가지고 분투하시는 형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人生의 넓은 戰場에서 쫓기는 송아지가 되지 말고 투쟁하는 영웅이 되라”는 어느 詩人의 이야기 는 곧 肯定하는 人生이요, 創造하는 人生이 라고 생각합니다.

兄은 곧 그 투쟁하는 영웅의 긍지를 잃지 마 시고 묵묵히 고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새로 운 生의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다시 뵙는 날 좀 더 보람있 는 이야기들을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 수 있는 기회 가 주어 지기를 빌면서 이만 작별합니다.

1976년 11월 1일

西小門 一隅에서

愚 弟 울림